

菱花板製作 및 內賜記研究

李 殷 澤*

目 次

머리말	II. 內賜記 및 聖寶捺印
I. 菱花板 表紙에 對하여	1. 內賜記
1. 菱花板의 由來	2. 宣賜之記
2. 菱花板 表紙製作	3. 同文之寶
3. 菱花板 彫刻	4. 奎章之寶
4. 菱花板木의 다스림	III. 맺는말

머 리 말

여기에 叙述하고자 하는 論旨는 筆者가 啓明大學 圖書館에서 古書整理를 하다가 보고 느낀것, 새로 發見 한 것 또는 文獻을 通하여 識別한 것 등을 綜合하여 披棘한 것으로 古書整理를 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할 書誌事項, 識別能力 또는 貴重한 書誌의 價値를 探究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基礎的인 問題들을 擧論해 본 것이다.

그러나 筆者 자신이 古書整理를 하는데 있어 넉넉한 시간을 할애받지 못하고 放學 때나 또는 틈틈이 시간 있는 데로 古書를 접하여 왔기 때문에 아둔한 眼目과 짧은 識見인 것을 먼저 承認하는 바이며 또한 본지에 發表하는 이 書誌學問題는 中央의 該博한 先輩 書誌學者들이나 地方의 우수한 書誌學者들이 여러번 論文이나 學術討論等으로 發表한 것이 있었을 텐데도 不拘하고 筆者가 구태어 本誌를 割愛받아 披棘하는 취지는 지금껏 古書의 菱花板表紙의 由來와 先人들의 手澤이 아꼈던 高貴한 裝釘法의 論述은 보지 못했고, 또한 御寶가 捺印되어 重臣들에게 下賜된 內賜本의 內賜記, 宣賜記의 論文發表는 없었기 때문에 本稿를 通하여 地方의 各 大學이나 學校 또는 公共圖書館에서 古書를 整理하는 圖書館 專門人들에게 未洽하나마 加添의 도움이 될까하여 拙稿를 발표하는 바이다.

I. 菱花板 表紙에 對하여

菱花板은 우리나라 古書冊衣로서 各種 冊마다 저마다의 個性美를 살리고 獨特한 圖

* 啓明大學圖書館

2 도서판학 논점

案을 試圖하여 貴重한 典籍을 包裝한 하나의 裝釘具인 것이다.

그런데도 燈下不明이라는 말과 같이 우리들의 先祖 특히 文士階層의 사람들이 製本技術面에서 무려 半千年이라는 長久한 歲月에 걸쳐 많이 愛用되고 있던 菱花板이 書誌的 面이나 參考資料面에서 현저히 疏外되고 있다는 것은 古書를 정리하는 사람(圖書館人)들로서는 차제에 각성과 주의를 환기시켜 再考해야 할 問題가 아닌가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요즘「메스콘」이나「방승」을 통해 韓國美의 再發見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는데 이 菱花板 識別이 즉 韓國美의 再發見에서 疏外되고 있다는 말이라 하겠다.

예로부터 종이(紙), 붓(筆), 먹(墨), 베풀(硯)이 네가지는 文房四友라 하여 詩人墨客들의 必需愛用品이었지만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菱花板도 古人들은 文房用具의 하나로 重用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菱花板中에는 後面에 “菱花板文房中一物而不可無者 夏正戊申冬 造成于竹下齋室”(1)이라 達筆의 끝새를 刻하고 그 밑에는 翠竹藏書閣이라는 方印의 落款까지 곁들여 있는 것을 보면 先人들의 菱花板 愛用度를 짐작케 할 뿐만 아니라 古書製本에 없어서는 안될 必需品이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京鄕과 官民을 莫論하고 官衙, 書院, 私家 등에서 紋樣도 各樣各色이고 천태만상인 菱花板을 많이 彫刻하였는데 유감스럽게도 어느때 어디서 누가 彫刊하였다는 記錄은 거의 없기 때문에 文獻上으로 發表할만한 근거는 없다. 그러나 필자가 啓明大學 圖書館에 所藏된 古書를 整理하면서 着眼한 菱花板表紙로는 대개 卍字紋과 蓮花紋이 大部分이고 記錄에 나타난 菱字紋, 雲紋, 梅花紋, 石榴紋, 雙龍紋, 樂器紋, 雲龍紋, 睡蓮紋, 福字紋, 雲鶴紋, 牡丹紋, 竹紋, 扇紋, 完字紋, 唐草紋, 菊花紋, 나비紋 등은 거의 없는데 이것은 많은 量의 古書를 確保하지 못한 때문이기도 한 것이다.

菱花板으로 書誌識別을 할 수 있었던 한 例로 서울「通文館」社長 李謙魯氏가 所藏한 栗里軒 雙楹堂藏(前面龜甲仙挑花紋, 後面卍字紋) 61×32cm를 引用하면 雙楹堂은 東岳(李安訥 宣祖 4~仁祖 15, 1571~1637)先生으로서 卷十 錦溪錄에 題雙楹堂用故洪舍人迪韻條에

“堂在進樂山下 乃古萬德寺也 栗亭先生布衣時 讀書于此 庭前有兩古檜 蒼翠參天世傳 先生所手植 鄉人慕先生道德 將以寺爲書院 以祠先生故號曰 雙楹堂 前數年檜爲 山火所燒 今只有一株可歎也”(2)

이라는 記錄에 依하면 雙楹堂은 지금의 全羅北道 鎭山郡 進樂山下에 있음을 알았고 雙楹堂은 본래 萬德寺라는 절이었는데 栗亭(尹澤 1289~1370)(3)이라는 분이 이 寺刹

(1) 李謙魯, “菱花板小考,” 國會圖書館報, Vol. 6, No. 8, 1969. 8. p. 5.

(2) ibid. p. 6.

(3) 世界人名大事典(서울: 文公社, 1973) p. 1177.

에서 工夫하는 동안 손수 두 그루의 진나무를 뜯어 심은 것을 後人들이 栗亭의 遺德을 追慕하는 뜻에서 절을 書院으로 改造했고 또 先生을 拜謚하여 雙楹堂이라 한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이 菱花板은 錦山郡 星谷書院의 刻刊板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古書를 包裝한 菱花板으로도 그 冊의 裝幀年代와 考證을 大略은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이 菱花板은 어느때 부터 使用하기 始作하였으며 어떤 사람의 考案으로 누구의 손에 依하여 만들어졌나를 알 필요가 있다.

高麗 顯宗~宣宗年間에 外變을 佛力에 依하여 클러가게 하는 發願으로 大藏經本을 出刊하였는데⁽⁴⁾ 이때에도 이미 卍字紋과 蓮花紋 菱花板 使用이 많았던 것을 알 수 있다.⁽⁵⁾

그러고 보면 이 菱花板은 맨 처음 寺刹에서 僧侶들의 考案으로 始作된 것이 틀림없는 것으로 推測되는데 왜냐하면 가장 오래 되고 또한 代表的으로 많이 쓰인 菱花板의 무늬가 蓮花紋과 卍字紋인데 蓮花紋과 卍字紋은 釋迦牟尼의 탄생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釋迦史에 “大覺聖尊에서 머리에 日精冠을 쓰시고 목에 日月光을 차시고 가슴에 卍字를 뚜렷이 나타내시니”⁽⁶⁾라 했고 또 八相錄乘象入胎條에 “一位善惡菩薩이 威儀를 갖추시고 圓光中에 내려오시되 左手에는 蓮花를 드시고”⁽⁷⁾라 했으며 이어서 八相錄樹下誕生條에는 “太子께서 四方으로 各各 七步를 거니시니 문득 四色蓮花가 땅으로 쫓아 쫓아오르니”⁽⁸⁾라 한 것을 봐도 이 菱花板에 蓮花紋과 卍字紋을 刻한 것은 정녕 釋迦牟尼를 상징한 것이며 따라서 거듭 말하지만 菱花板 始用은 僧侶들로 부터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蓮花紋과 卍字紋이 變하여 菱花板의 紋樣이 多樣하게 되기 시작한 것은 佛敎를 배척하고 儒敎를 숭상하던 李朝에 접어들면서 부터라고 생각 되는데 그 이유는 “李朝初葉 鄕三峯等을 先鋒으로 하는 斥佛論 때문에 佛敎는 그만 무서운 壓迫을 받아 山間으로 숨어버렸기 때문에 佛敎의 殘餘風習인 菱花板도 自然히 變更될 수 밖에 없었다고 본다.”⁽⁹⁾

1. 菱花板의 由來

菱花板의 由來에 대하여 論考하기전에 필자가 우선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하필이면 많은 꽃중에 왜 무슨 까닭으로 菱花板이라 呼稱이 되었는지 板의 紋樣과 名稱이 名實相符하게 納得이 가지 않는 점이다.

(4) 高麗史節要, 1960 12卷 6册, (서울:東國文化社) p. 18.

(5) *ibid.*, p. 5.

(6) 釋迦史 卷2(出版未詳), p. 58.

(7) *ibid.*, p. 60.

(8) *Ibid.*, p. 26.

(9) 金亨奎, 高麗版大藏經과 朝鮮의 印刷術(京城:湖鮮學海社, 1940) p. 323.

4 도서판학 논집

그러나 大韓漢辭典을 살펴보면 菱(마름은) 菱也⁽¹⁰⁾라 했고, 武陵記에는 四角曰菱 兩曰菱, 菱同 菱(마름능) 菱角菱也라 했으며, 陸田詩疏에는 武陵記曰 四角菱兩角曰菱 으로 되어 있는데 또 中國 商務印書館發行 辭源에 의하면 菱은

“本作菱 果類植物 種波塘中莖端出葉 略成三角形 浮於水面 柄上具浮囊 夏月開 小白花 四瓣白色 實有四三兩角故 謂之菱角 或青色 或紅色 生熟皆可食”⁽¹¹⁾

云云으로 되어 있으니 즉 菱은 菱으로 통하며 우리 말로는 「마름」 「마람」 또는 浮萍 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것 같다.

그런데 菱花板의 무늬중에 菱蓆이나 菱花 비슷한 사각형의 무늬가 잔혹 있기는 하나 이것만으로 菱花板이라 名命하기에는 좀 格에 맞지 않은 感이 없지 않는데 차라리 呼稱하기를 蓮花紋紙이라고 했으면 더 合當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나 이것 또한 斥佛崇儒하던 李朝때부터 불리어온 名稱이니 만큼 지금에 와서 이유를 달고 이러니 저러니 할 것은 없는 것이다.

2. 菱花板 表紙製作

科學이 發達한 요즘은 冊 表紙 製作에도 最新型 機械를 使用하여 만들기 때문에 連續的으로 쏟아지는 作業能率量이란 숫자를 헤아리기가 어리석을 정도로 빠르지만 옛날 우리 先祖들이 冊 表紙를 만들 때는 진실로 精誠과 誠意가 가득 담긴 眞의 作業이 있었다.

우선 表紙를 만들려면 壯紙, 筒壯紙, 大好紙, 菱花紙, 白錦紙 등 여러 종류의 종이 중에서도 제일 싼하고 길진 楮注紙 같은 종이를 골라 2~3卷(1권 20張)을 마련했다⁽¹²⁾ 그리곤 부차적으로 使用되는 물건들을 具備하는데 거기에는 가로 60cm 세로 1m 쪼뽀는 들어 옮기기 쉬운 松板, 쌀이나 수수쌀로 쭈운 풀, 짐승 털이나 벗짚 순으로 만든 풀귀얄(주로 벗짚으로 만들어 벗음)가늘게 꼬은 실끈(絲線), 黃色빛을 얻을 수 있는 梔子, 滑磨石(滑石을 많이 使用했음)송곳, 竹針, 菱花板木, 壓石, 蘇香(一名 차지기라고 하는 香氣 있는 풀인데 이汁을 表紙에 바르면 책에서 오래도록 향기가 나며 좀(蠹)이 먹지 못함)등을 갖추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備品을 구비했다고 해서 아무나 表紙를 使用 可能토록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 使用하는 方法과 道具使用의 順序를 알아야 한다. 그것을 순서적으로 기록한다면 제일먼저 斜陽지고 평탄한 곳에 松板을 눕히고 그 위에 우선 물을 뿌린 다음 종이 첫장을 붙인다.⁽¹³⁾ 그리곤 물을 바르고 종이를 붙이고 또 바르고 붙이고 하여 세번을

(10) 張三植, 大韓漢辭典(서울:省文社, 1964) p.1272.

(11) 辭源(中國:商務印書館, 1949) p.1329.

(12) 崔兩善, 聘春巡禮(서울:白雲社, 1936) p.253.

(13) 松板에 물을 먼저 뿌리고 양이할 붙이는 이유는 물기가 없어도 잘 밀착되게 하기 위한 것이며 달일 풀칠을 하고 종이를 붙이면 붙기 때문에 풀칠은 不可한.

기름한다. 세번으로 그치는 이유는 楮品紙 같은 종이를 3장이상 붙어서 말리면 꺾어지기 쉽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는 約 30分程度 曝光을 하는데 이 曝光하는 절차가 일단 끝나면 蘇齋이나 松汁을 塗布하고 또 그 위에 풀칠을 한다. 이렇게 4차례의 풀칠이 끝나면 또 約 30分間을 말린다. 그러곤 그 위에 노랗게 우러난 梔子木을 정성들여 바르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 作業은 比較的 쉬운것이냐 다음 부더는 정말 能熟한 技巧이 아니면 좋은 良質의 表紙를 얻을 수가 없는데 그 技巧라는데는 남이 모르는 自己特有的의 方法을 구사하는이도 있고 하여 알아내기가 여간 험뜨는 것이 아니다.

梔子木과 아울러 表紙가 어지간히 마르면 松板에 붙인 乾表紙를 우선 떼다. 그리고 松板에는 두껍의 무명천을 깔고 다시 표지를 덮은 다음 菱花板木과 무거운 壓石을 얹어 5~6시간 정도를 바둔 뒤에 서서히 壓石을 내리고 菱花板과 아울러 表紙를 들어보면 凸凹式의 아름다운 卍字紋이 선기하게 아로새겨지는 것이다.

다음에는 火爐위에다 菱花板 表紙를 얹고 따뜻하게 加熱을 하면서 蜂蜜로 표지 위를 슬슬 문지른다. 그러면 서서히 녹아 내리는 蜂蜜이 表紙에 密着되면서 유연하고 高雅한 빛이 發하는데 그 蜂蜜를 문지르는 斜壓力이 또 알맞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일단 능화표지 製作이 끝나면 규격을 맞춰 冊의 五孔을 뚫고 靑絲 黃絲 竹針等을 이용하여 裝釘에 붙여간다. 그러나 菱花板 表紙를 製作할때 필자가 진기한대로 楮注紙를 주로 많이 사용했기는 하나 우리나라 楮紙의 品質이 文獻에 依하면 不良했다고도 볼수 있는데 그것은 즉 李裕元(1814~1888) 先生 著書인 林下筆記 22卷 文獻指掌編 十二 楮品論에 依하면

“我國之楮 宜於造紙 然 重且起毛 不如倭楮之輕澤精緻 平時所印書冊 今或有遺傳者多 是倭楮造紙極是可靠 今漸絕無矣”⁽¹⁴⁾

라 했으나 그는 또

“嘗聞祖宗朝往取其種欲使蕃殖 今南方海濱往往有之而人不知廣植 今列邑皆種之而勸諭人民使之廣植可也”⁽¹⁵⁾

라 한것을 보면 楮木의 質이 根本的으로 日本의것이 우수했던것만은 사실인것 같다.

3. 菱花板 彫刻

菱花板의 彫刻年代는 木活字版 彫刻年代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 만큼 高麗 8代王顯宗으로 부터 11代王인 文宗에 부터 彫刻하지 않았나 보고 있다.

¹⁴(14) 李裕元, 林下筆記 文獻指掌編七(서울: 成均館大學校 大同文化研究院 1961) p. 151.
⁽¹⁵⁾ Ibid.

6 · 도서관학 논집

예나하면 蓮花紋은 佛敎와 깊은 관계가 있는 만큼 興佛政策으로 찬란한 文化를 창조했던 新羅도 瓦當이나 佛像의 臺座, 壁畫, 石燈, 石槽 등에 이미 蓮花紋을 裝飾紋樣으로 使用했을 뿐만 아니라⁽¹⁶⁾ 高麗도 契丹等 外侮를 받으면서 佛力으로나마 外侮를 막아볼까 하여 大藏經版雕造를 佛天에 盟誓하고 經板의 彫造를 시작했듯이 其後三代를 지나 文宗王時에 完成했다고 하는데 內容은 알 수 없으나 經論이 무려 六千卷이었다고 하니 그때 이미 藏經本을 포장하는데 필요한 紺字紋 菱花板도 함께 彫刻했으리라 보고 있으며 또한 蒙古兵의 侵略으로 인한 燒失 때문에 大藏經 再雕의 大業을 完成한 高麗 高宗 33年 辛亥九月條

“壬午 幸城西門外 大藏經板堂率百官行香 顯宗時板本 燬於壬辰蒙兵 王與群臣更願立都監 十六年而功畢”

이라는 記錄을 보더라도 菱花板의 藏經 同時彫造論은 歷史와 時代相으로 봐 어긋남이 없는 것이다⁽¹⁷⁾

그러나 그 國家無上의 大寶였던 初回 大藏經은 外侮의 國亂에 燒失돼 버리고 지금은 板木도 冊도 남지 않았으니 가슴 아픈 일이라는 하나 多幸히 再次 雕造한 大藏經板은 지금 海印寺에 있어 우람한 高麗의 찬란한 유적을 볼수가 있는 것이다.

이상 열거한 論旨는 대개 필자가 근거 있는 文獻을 通하여 論述한 것이고 실지 菱花板 彫刻과정에 대하여는 參考할만한 文獻이 거의 없는데 단지 林下筆記 17卷 文獻指掌編 木板鑄字之辨을 보면 다음과 같은 文句가 있다.

“李暉光類說曰 鑄字印書創自本朝 非中國所有也 自變後以刻木 爲難多用活字而考校不彘易致訛誤可恨 聞祖宗朝 凡書籍有誤者監印官輒杖之故 絕無錯字 且中朝冊板以梨棗雜木爲之而 我國則惟用梓木故 板子甚難刊然 盪水釜蒸三四日然後 刻刀易割平而久持 一毫無違 永世不蠹”⁽¹⁸⁾

이를 번역하면 李暉光이 말하기를 活字의 印書는 우리 나라가 創作한 것이지 中國의 만든바는 아닌데 나무로 彫刻함에 있어서 나무를 사용한 活字는 校正을 보는데 어려움이 많고 또 세밀히 검사하지 않아서 誤錯되는 것이 많아 한스럽다. 그런데 한편 들으니 조정에서는 書籍의 誤謬를 막기 위하여 監印官을 둔 뒤로 부터는 절대로 誤字가 없어서 다행이었다. 그리고 中國의 冊板은 배나무와 대추나무등 雜木을 사용했으나 우리나라는 늘 가래나무를⁽¹⁹⁾ 사용하기 때문에 板子를 彫刻하기가 심히 어렵다. 그러나

(16) 金和英, “三國時代蓮花紋研究” 歷史學報 11輯(서울, 歷史學會, 1967) p. 70.

(17) 高麗版大藏經과 朝鮮의 印刷術 p. 323.

(18) 李裕元, 林下筆記 p. 418.

(19) 李熙昇編, 國語大辭典(서울: 民衆書館, 1967)에 가래나무는 목재가 단단하여 銃床, 米壼기, 장농 器具, 彫刻 등의 재료로 쓰이고 종자는 食用 및 藥用하며 樹皮는 줄 대신으로 쓰임, 槲木.

소금물에 불구이 3~4 일동안 솥에다 쪄면 조각도가 잘 들고 견고한것이 평탄해 조금도 어그러짐이 없고 또한 오래도록 쭈미 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李裕元先生이 지은 林下筆記에는 板木製作에 쓸 나무의 종류와 處理과정을 詳細히 기록했다. 그리고 좀 색다른지 하지만 古活字本과 菱花板이 明나라 穆宗에게 朝貢物로 獻納에진된 記錄이 있어 引用하겠는데 그 文獻은 即 荷谷先生(記 蔚西紀 1569 宣祖 2年 朝天記 上卷 中國詔使條에)

“項者屢求 皇華集 5部, 菱板 3組, 鏡面紙 60張, 絲笠三部而 今日何以只將 皇華集一部來耶 大春曰 (宋大春, 그 때 中國詔使로 許筠, 宋大春, 金永雲, 金鸞孫, 申燦, 軍官 金麗生, 許映, 李寬등이 同行이었음) 皇華集則例於詔使來日臨時錄字刻板而 印齒件今已用盡只餘部故耳若 咨文紙功力極重艱用於事大文書而別無餘儲”(20)

라 한것을 보면 우리나라 古活字本과 菱花板이 中國에 朝貢된것이 確實하며 또 미처 못가져 가면 특목을 받은것도 사실인것 같다.

4. 菱花板木의 다스림

林下筆記 17卷 文獻指掌條 木板錄字之辨에 記錄된것 처럼 菱花板을 彫刻하는데 있어서도 木活字板을 다스리는 과정과 별로 다를것이 없었다. 板木으로 選定된 梓木을 구하면 우선 精緻하게 다듬어야 할 뿐 아니라 이어 소금물(鹽水)에 3~4일간 담갔다가 솥에 넣어 쪄야(蒸) 하는데 이것은 木板이 龜裂되거나 굽는(枉)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니, 또한 좀(蟲)을 막기도 하지만 첫째 나무를 삶는 이유는 삶아 木結이 죽으면 刻刀가 잘 들기 때문이고 또한 濕氣나 腐蝕을 豫防하는 方法이기도 한 때문이다. 이러한 절차를 거친 板木은 물기가 완전히 거처 表面이 어느정도 마른 다음에 彫刻을 할 수 있는데 조각하기 전에 먼저 卍字紋이나 蓮花紋의 圖案을 그려 붙여야 새기기가 容易한것은 勿論 線이 方正하고 均衡이 맞게 된다.

이와 같이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를 거쳐 彫刻된 菱花 卍字紋 表紙가 지금까지 남아 전해 오는것은 여러종류의 冊子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代表的인 것은 대개「司馬榜目」崇禎 3年, 乙丑冬 (1630年), 「園隱集」英祖 45年 (1769), 「河西集」純祖 2年(1802), 「紀年編覽」純祖朝 (1801~1834), 「冬郎集」李太王 3年 (1899), 「青樓輯遺(續)」(1909)⁽²¹⁾, 등이 있는데 이 表紙의 크기는 보통 35×25cm 이나 실지 菱花板木의 크기는 大, 中, 小로 나뉘어 크기를 측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 된다.

以上으로 菱花板에 대한 論考를 4개 단원으로 나누어 古書의 表紙裝幀에 必要한 菱花板木製作 및 利用度 節次를 비교적 자세하게 열거한바 앞으로 이 部門에 識別은 한

(20) 許筠, 荷谷先生朝天錄·燕行錄, 上卷, (서울: 成均館大學校 大同文化研究院, 1960) p. 24.

(21) 諸洪圭, 韓國書誌學辭典(서울: 景仁文化社, 1974) p. 63.

걸음 前進한것으로 생각되나 한편 필자가 검색한 識見과 많지 않은 文獻으로 抽稱을
 免치 못한점 再次 自認하는바이며 또한 더 該博한 學者層의 踴躍한 貢獻을 간절히 바라고, 이
 어 內賜記에 대한 所論을 피하고자 한다.

II. 內賜記 및 璽寶捺印

內賜記란 國家에서 刊行한 書籍을 臣下들에게 頒賜했을 경우 그 信表로서 圖書에
 年號 및 月日 書名 受賜者名 등의 記錄을 달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內賜記를 적어주
 는 理由는 下賜品이라는것 보다 書籍을 오래 保存하자는데 目的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內賜記에 對한 說明을 하기에 앞서 下賜書籍에 內賜記와 宣賜之記를 가
 지고도 그 圖書의 刊行年度를 識別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어 그에 대한 典例를 먼
 저 究明해야 하겠다.

▲ 우리나라의 古板本은 그것이 官板이건 私板이건 간에 刊行年度가 밝혀져 있지 않은
 것이 大部分인데 설사 그것이 밝혀져 있다 하더라도 願王에 의하여 印出된 佛書以外
 에는 그 刊年을 믿기가 매우 어렵다. 특히 木版印本の 경우는 그 율이 더하여 비록
 序文, 識語, 跋文 其他 등이 記錄되어 있어도 年號와 干支가 分明하지 않은 이상 刊行
 年度를 識別한다는 것은 容易한 것이 아니고 더욱기 後刷, 再刊, 覆刻本等 비슷한 印
 板이 重複되어 있어 더욱 印刷年度를 알아내기가 困難하다.

그러나 刊年이 明示되어 있지 아니한 印本으로서 그 正確한 年代를 考定할 수 있는
 것은 官板本中の 內賜本인데 앞서도 말한바와 같이 內賜本이란 즉 王이 臣下들에게 下
 賜한 書籍으로서 이 內賜本の 內賜記 年代는 그 冊의 刊行年度와 一致한고로 그 內賜
 記의 記錄年代는 卽 그 圖書의 刊行年度로 보아도 틀림 없을것으로 생각된다.⁽²²⁾ 왜
 냐하면 內賜規定上 受賜者는 3個月 以內에 內賜圖書를 製本해 承政院에 提出하면 承
 政院에서는 書籍에 內賜記를 적고, 奎章之寶 및 宣賜之記를 捺印하여 다시 本人에게 배
 주었을뿐 아니라 卷首아래 匡郭에는 ○○開刊이라는 刊年의 干支가 內賜記에 記錄한
 干支와 同一하게 記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울러 內賜本에는 반드시 內賜記
 와 함께 國王의 璽寶가 卷首初頭に 찍혀 있는데 內賜記 및 璽寶의 捺印이 兩者가 모
 두 實在한다면 刊年을 考定하는데 더 이상 多幸한 일이 없지만 때로는 破損 또는 改
 裝했기 때문에 印文만 남아있는 例가 많은 것이다.

이와같이 內賜記가 없어지고 印文만이 남아있는 도서의 刊行年度 推定은 다른方法
 이 없는 한 그 印文과 印宋를 觀察하여 그것이 使用된 시기를 알아맞추는 길 밖에 없
 다. 그러나 이같은 觀察法은 오랜 經驗을 통하여 얻어지는 結論과 짐작인 만큼 科學

22) 白麟, “內賜記와 宣賜之記에 對하여” 國會圖書館報, Vol. 6, No. 8, (1969. 8) p. 11.

的인 方法은 아니다.

1. 內賜記

우리 나라에 있어서 高麗時代 以前에 書籍의 內賜制度가 있었는지는 記錄과 文獻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 없으나 王이 朝臣들에게 書籍을 頒賜한 例는 高麗史의 記錄에 間或 보인다. 卽

“秋七月 御文德殿覽歷代秘藏文書 擇部秩完全者 分藏于文德長齡殿御書房秘書閣 又賜兩府宰臣及誥院史翰內侍文臣有差”(23)

이를 번역하면 肅宗元年(1096) 七月 庚寅朔에 王은 文德殿에 나아가서 秘藏의 文書를 觀覽하시고, 그 중에 部秩이 完全한것 만을 골라서 文德殿, 長齡殿, 御書房 그리고 秘書閣等에 分藏케 하고 나머지는 兩府의 宰臣과 誥院 史翰 및 文臣들에게 頒賜하였는데 各各 그 品階에 따라서 차이를 두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高麗時代에 있어서 卽 書籍을 內賜한 實例라고 하겠다. 그러나 그것이 制度化 된것은 아니고, 실지 典例화된 때는 李朝 第4代王 世宗 22年 부터 비롯했는데 世宗實錄 第90卷 22年 8月 乙卯條에는

“傳承改院 鑄字所模印書籍 頒賜各品其受賜者 不用心粧績 以致損壞 自今限三以月 粧績星本院 受宣賜之記 永久爲式”(24)

이나 記錄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國家는 鑄字所에서 印出한 冊을 各 品官들에게 頒賜하여 있는데 그것을 받은 자가 製本을 게을리하여 冊이 毀損하는 일이 許多하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3個月 以內에 製本하여 承政院에 提出 宣賜之記를 받아야 하며 이어 이 規定은 永久히 이행하라는 말인데 이것은 圖書의 保存을 爲해 定해진 規定으로 國家에서 典籍을 새로 刊行하였거나 保管하는 圖書中에 잉여 도서가 있으면 그 處理가 困難할 때 臣下들에게 分賜하여 保存에 대한 責任을 지게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內賜本에捺印되는 御寶 卽 國璽의 種類는 宣賜之記를 비롯하여 5個의 名稱이 있으나 後述하기로 하고 우선 內賜記의 內容에 對하여 略述해 보기로 한다.

內賜記의 記錄은 반드시 第1冊의 表紙裡面에 다음과 같이 記錄되는데 그例를 들면

乾隆四十七年 十一月 日

內賜

國朝寶鑑 御製序文校閱原任 奎章閣直閣國朝寶鑑一件

(23) 高麗史節要, p.18.

(24) 世宗實錄: 第90卷, 世宗 22年 8月條

命除謝

恩

奎章閣直閣 臣 金 手決⁽²⁵⁾

이라 記錄에 있는데 이는 正祖 6年 (1782) 11月 某日에 國朝寶鑑의 王이 지은 序文을 校閱한 奎章閣 直閣 金某에게 國朝寶鑑一件을 下賜하이 恩恩을 除謝할 것을 命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奎章閣直閣 臣 金某 記名手決 (Sign)이라 되어 있다. 그러니 上記한 國朝寶鑑은 內賜記에 記錄돼 있는데로 正祖 6年 壬寅 (1872) 11月에 發刊하여 下賜한것이 分明하며 더욱 근거가 明確한 것은 正祖大왕의 序文末尾에 “茅踐位之六年 壬寅陽月”이라 기록돼 있기 때문에 이冊은 1782年 (壬寅) 三月에 刊行하기 시작하여 그 해 11月에 內賜한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冊이 다른 內賜本과 特異한 점은 御製序文이 끝난 末尾에 「奎章之寶」라는 璽寶가 검은 黑色으로 또 찍혀 있다는 點이다. 勿論 卷首 初頭에 鐵粉이 섞여 검은 색으로 退色한 奎章之寶의 印朱捺印이 있는데도 再次 捺印한 점은 다른 內賜本과 別다른 점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또하나의 例本으로는 「御定四部手圖」으로서 이冊에는

嘉慶七年 五月 日

內賜前假注書 朴某 (以下 腐蝕되어보이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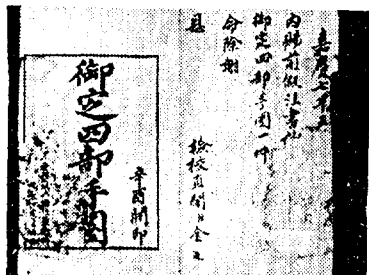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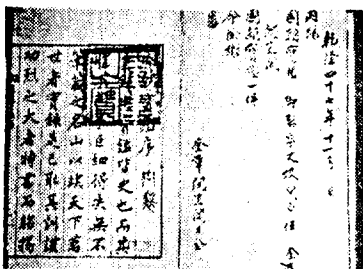
御定四部手圖一件

命除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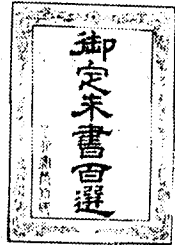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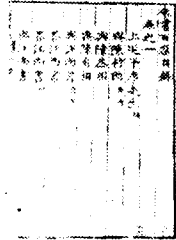
恩

檢校直閣 臣 金某 (手決)⁽²⁶⁾

이라 記錄에 있는데 이冊 亦是 純祖 2年 (嘉慶 7) (1802年) 壬戌에 完刊하여 內賜한것이 틀림 없는 것이다. 더구나 卷首 初頭에는 「辛酉開印」이라 印刷되어 있기 때문에 이책은 즉 1801年 辛酉에 開刊하기 始作하여 이듬해인 1802年 壬戌 5月에 完刊하



(25) 國朝寶鑑, 內賜本, 御定四部手圖(啓明大學圖書館所藏)參照
 (26) Ibid.



이 內賜한것이 分明한 것이다.

이상으로 內賜記에 記錄된 年 月 日이 그 內賜本 圖書의 刊年과 一致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우리가 內賜記에서 찾아볼 수 있는 事實은

- (1) 奎章之寶 및 宣賜之記를 찍어준 年 月 日
- (2) 受賜者의 직함과 姓名
- (3) 書名
- (4) 璽寶를捺印해 준 官吏의 署名

等이다. 이같은 事實 中에서 重要한것은 勿論 年 月 日이다. 따라서 書誌學上 內賜記가 貴重한것도 이 年 月 日이 刊年에 代身한 수 있는 有力한 證據가 되기 때문이다.

2. 宣賜之記

「宣賜之記」는 本來 內賜圖書에 限해서만 使用된 璽寶이다. 이와같은 御寶가 있게된 重要한 原因은 世宗 28年 8月 乙未의 傳敎이라고 하였지만 그보다 앞서의 原因은 「內賜」二字의 藏書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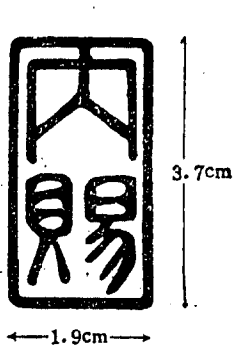
“集賢殿啓經筵所藏書冊 不可無標記 請以經筵二字作圖書每卷首標 又以內賜二字作圖書 如有賜者看標以賜從之”(27)

(27) 世宗實錄：43卷，11年 3月 壬申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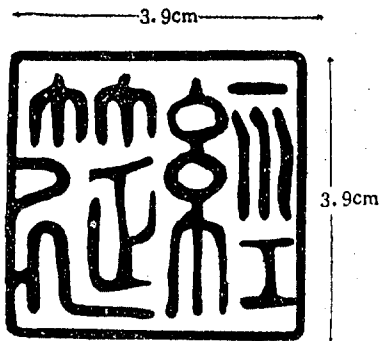
12. 도서관학 논집

라 한것과 같이 内賜되는 圖書에 限해서는 반드시 看標로서 「内賜」라는 印을 만들어 찍으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世宗 11年 3月 集賢殿에서 提出된 意見이 採擇되어 그후부터 經筵所藏의 圖書中 下賜本에는 반드시 内賜라는 印을 찍었던 것이다. 이와같은 規定이 擴大됨에 따라 모든 内賜本은 宣賜之記를 받아야 한다는 點에서 이 制度를 制定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다음에서 볼수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宣賜之寶」나 「奎章之寶」 및 「同文之寶」 등의 印의 크기와 印文의 글자가 모두 꼭 같은 字樣이라는 點을 알 수 있고, 그것은 또 世宗時의 것이나 世祖時의 것이며 成宗, 明宗 壬辰直前의 것도 모두 모양과 字樣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世宗 27年(1445)頃璽寶



萬曆 39年(1611)頃의 璽寶

그러나 印鑄造에 使用된 材料가 무엇인지는 자세히 알 수 가 없는데 단지 仁祖實錄 6卷 己未條를 보면 璽寶材料에 대하여 대강은 짐작할 수 가 있다.

即 “上曰 國家多事差退何妨 廷龜曰 御寶今當改造而 爲政以德 科擧之寶 宣賜之寶 此三寶 皆鑄之以銀乎 古者或有以銅鑄之未知如何 上曰 宣賜之寶 雖以銅鑄之可也”⁽²⁸⁾

라 한것을 보면 仁祖以前에는 銀鑄璽寶를 썼으나 그것이 많이 마모된 까닭에 銅鑄璽寶로 改鑄에 쓴것을 알 수 있고, 또 仁祖以前에도 혹 銅鑄璽寶를 썼다는 말이 있는데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다는 記錄이 있다. 그러니 仁祖 2年부터는 御寶, 科擧之寶 宣賜之寶等 三寶가 모두 銅으로 改鑄된것이 確實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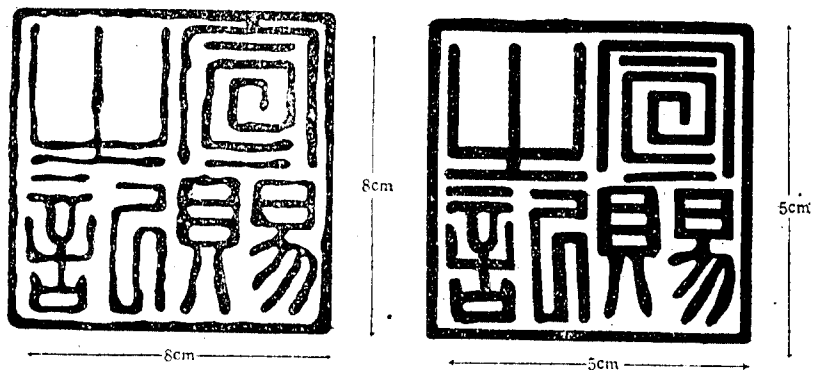
1865年(李太王 2年) 11월에 編纂된 大典會通의 璽寶條나 御寶를 列擧한 中에는 다음과 같은 記錄을 볼 수 있다.

(28) 朝鮮王朝實錄：第6卷 p.6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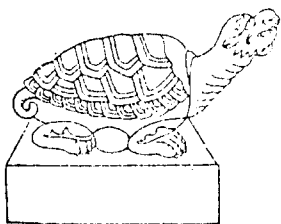
宣賜之記 宣貺端輔(補) 今無) 同文之寶 (井用於頒賜書寶(補) 今無)이 세가지 印은 어떤것이는 國王이 書籍을 臣下에게 下賜할때 쓰는 것이며 大典會通을 編輯했을 때에는 宣賜之記만이 쓰여 있다.

그때도 歷寶條의 全文에는 1785年(正祖 9年)에 完成된 大典會通에서 처음 收錄된 規定이고 그때 까지의 法令集에는 없다. 그리고 宣賜之記外에는 없을 뿐 아니라 또한 始用의 時期는 알 수 없는데 時代的으로 본다면 正祖가 創製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正祖때에 編纂된 「大典通編」에는 圖書의 頒賜에 使用된 歷寶로서 宣賜之寶 宣貺端寶, 同文之寶, 奎章之寶等 4種이 적혀 있다. 그런데 이中 宣貺端寶와 同文之寶는 今無라고 한것을 보면 正祖以後에는 使用하지 않은것으로 되어 있다.⁽²⁹⁾



西山先生眞文忠公文章正宗卷六(世宗時)



앞의 印種에서 본 세種類의 歷寶에 比하여 世宗時에 使用된 「經筵」과 「內賜」두 種類의 內賜歷寶는 앞의 印種보다 越等히 작은것으로 보통 3.9cm×3.9cm 이며 字體는 印信에서 흔히 볼 수 있는 篆書體인을 알 수 있으며 이어 「內賜」二字의 印은 短形의 印으로서 크기는 3.7cm×1.9cm 인데 印文의 字體는 亦是 小篆인 것을 볼 수 있다.

3. 同文之寶

이 歷寶도 書籍의 下賜時에 使用됐던 것으로 이것이 어느때 부터 있었는지는 經國大典이나 受教輯錄等 正祖 以前의 典籍에서는 發見할 수가 없고, 正祖때에 編纂된 大典

(29) 大典通編: 歷寶條 正祖 9年(1785) 9月 編纂 參照

12. 도서관학 논집

通編에서만 發見되는데 그렇다고 大典通編이 編纂된 그해 부터 이 印章이 使用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그것은 이 보다 훨씬 앞서 이미 使用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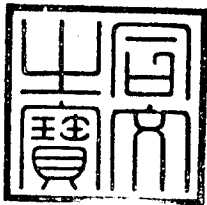
왜냐하면 正祖以前에 이 璽寶가 使用된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고 또한 앞서 使用해 오던 璽寶를 바꿀만한 아무런 理由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內賜寶가 使用된 實例로 서울大學校 白麟先生의 記錄을 引用하면 正祖 5年 (1781)刊의 「新臨濟文院講義」2冊 丁酉字版, 과 「文臣講製節目」 丁酉字版 1冊에서 볼 수 있다는데 이 책은 奎章閣의 抄啓文臣의 講製에 關한 書籍으로 奎章閣制가 確立된 뒤에 印出한 冊이라 한다.⁽³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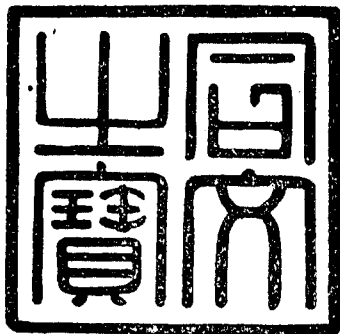
이와같은 사실에서 볼때 이 寶印은 奎章閣의 閣臣에게 特別히 頒賜하는 書籍에 對하여 親近感을 나타내기 爲하여 이 大寶를 만들어 使用했던것 같다. 그런데 이것이 李朝 英祖 以後에 使用됐던 것으로 高宗때는 일시 없어졌었고, 1889年 (高宗 26) 8月에 또 만들었다는 說도있다.⁽³¹⁾

그러나 白麟先生의 主張에 依하면 이 璽寶가 英祖 以後에 一般의으로 內賜에 使用된 例는 發見되지 않았다고 하며 또한 이 璽寶가 高宗 26年 8月에 改鑄됐다고 하는 것은 실지 正祖 5年, 以後, 이 印寶가 下賜書籍에 使用된 例가 없는 만큼 1889年에 改鑄됐다는 말은 틀리는것 같다.

方三寸二分 高九分 應徑大四十
廣二十六分 高一寸四分 刻深一分
郭廣一分 安於



同文之寶
天後集



9cm

9cm

同文之寶正祖五年使用

4. 奎章之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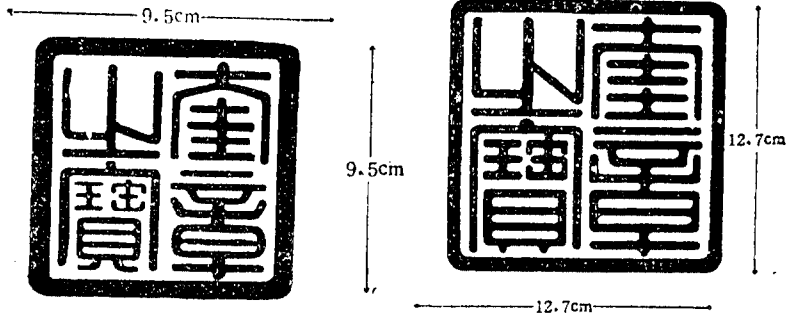
奎章之寶도 亦是 正祖 4年 以後 書籍의 下賜時에 使用됐던 璽寶의 하나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重要視해야 할것은 璽寶가 同文之寶에서 奎章之寶로 바뀌었다는 事實

(30) 白麟, p. 14.

(31) 李弘植, 國史大事典(서울: 百萬社, 1973) p. 4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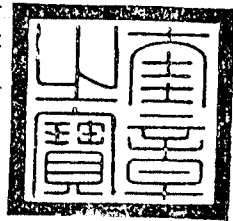
보다 書籍의 頒賜委任廳이 承政院에서 奎章閣으로 移管되었다는 事實을 알아야 할 것이다. 前에는 下賜書籍을 承政院에 提出하여 宣賜之記를 받았던 것이나 正祖 5年(1781)頃 부터는 承政院의 業務가 弱화되고 奎章閣의 機能이 擴大됨으로 因한 것이었는데 그렇다고 이때 부터 使用된 奎章之寶가 처음부터 頒賜書籍에 使用키 爲하여 만든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正祖가 御製 및 御筆等을 奉安하기 爲해 奎章閣을 昌德宮內禁苑에 併設하고 御製 或은 御定書로서 刊行되는 것은 그 事實을 銘識시키기 위하여 이 璽寶를 使用하기 始作했던 것이 其後 奎章閣機能이 擴大되면서 書籍頒賜時에도 主로 많이 使用했던 것 같다.⁽³²⁾

여하튼 이 奎章之寶는 正祖 5年(1780)頃부터 高宗 14年(1864)까지 115年間에 걸쳐 頒賜圖書에 使用됐던 것이다.



御製龍珠寺祈福偈 正祖 20年 (1796年)

方三寸四分毫高一寸二分毫
 五寸廣二十九分毫二寸三分
 五毫距廣二分五毫



奎章之寶

御寶全

위에서 列舉한 宣賜之記, 同文之寶 奎章之寶等 3種類의 璽寶外에도 欽文之寶(欽文이라는 것은 帝王의 글이나 또는 말을 뜻하는 것인데 이것이 內賜圖書에 찍어주는 璽寶로 使用된 것은 高宗 26年頃이라고 하는데 文獻과 根據가 없어 確實치 않음) 宣院端輔, 等の 璽寶가 있다는 說이 있는데 이것은 使用된 圖書와 根據文獻이 없으므로 더 시간을 두고 조사해 봐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밝히고, 실은

御定兵學通 正祖 9年 (1785)

(32) 仁祖實錄, 第6卷, p. 616.

것은 各種璽寶의 使用年代를 表로 나타내는 것인데 그것을 略表로 記錄한다면 大略 다음과 같다.

璽寶 使用年代表

西 紀	年號 및 內賜年月	王 朝	璽 寶	備 考
1502	弘治 15年 2月	燕山君 8年	宣賜之記	右承旨
1543	嘉靖 22年 11月	中宗 38年	"	左 "
1558	" 37年 7月	明宗 13年	"	左 "
1614	萬曆 42年 10月	光海君 6年	"	左
1631	崇禎 4年 11月	仁祖 9年	"	
1656	順治 13年 7月	孝宗 7年	"	
1701	康熙 40年 5月	肅宗 28年	"	左副承旨
1777	乾隆 42年 5月	正祖 1年	"	右承旨
1781	乾隆 46年 3月	" 5年	同文之寶	奎閣待教
1782	乾隆 47年 11月	正祖 6年	"	奎閣
1802	嘉慶 7年 5月	純祖 2年	"	"
1839	道光 19年 11月	憲宗 5年	奎章之寶	待教
1850	道光 30年 6月	哲宗 1年	"	檢校待教
1865	同治 4年 7月	高宗 2年	"	直閣

Ⅲ. 맺 는 말

本論에서 說明했지만 菱花板의 冊衣가 우리나라에서 使用된 年代는 歷史와 時代的 背景을 參酌하더라도 高麗 顯宗때부터 始作되기는 했으나 菱花板이 冊衣로서 必作된 年代는 아무래도 고려 高宗 38年 (1251 辛亥) 頃이 아닌가 생각된다.

에나하먼 佛力에 依한 外侵을 다스리기 爲한 發願으로 大藏經板을 舉國의인 作業으로 工畢했기 때문이고, 따라서 崇佛政策이 國內는 勿論 國外에까지 번진 時代였으니까 또한 疑心할 餘地가 없는 것이다. 하기에 高麗의 崇佛精神이 엿보이는 것은 太祖 (王建) 11年 八月條에 “新羅僧洪慶 自唐閩府 航載大藏經 至禮成江 王親迎之 置于帝釋院”라 했을뿐 아니라 또한 同王 12年 (929)己丑 六月條에는 “天竺國(印度)三藏法士摩 巖羅來王備儀迎之”라 한것을 보더라도 卍字紋 菱花板이 나오게 된 動機라 할 佛痕 卽佛是의 자취는 太祖때부터 이토록 盛行했던 것이다.

그러니 結論的으로 菱花板 製造年代는 高麗 高宗 38年頃으로 보는것이 正確할것 같다. 그리고 菱花板 製作의 材料는 林下筆記 17卷 文獻指掌編에 記錄돼 있는 바와 같이

가래나무를 使用한 것이 分明하나 이것은 李朝에 使用된 것이며 高麗 때에는 무슨 材料을 썼는지 記錄이 없어 確證한 길이 없는만큼 後 研究하기로 하고 이어 梓木의 治木過程은 鹽水에 5~6일간 比瀝시켰다가 솥(釜)에 蒸熟을 하면 어그리지지(飛戾)않을뿐더러 蠹虫의 腐蝕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菱花板 研究의 集合의인 結論은

- 1) 高麗 高宗 38年 以後의 冊衣가 거의 卍字紋 및 蓮花紋板이라는 점.
- 2) 大藏經의 大役事를 마친 高麗 高宗 38年(1251)부터 이미 製作 使用했다는 점
- 3) 무늬가 永久性이 있다는 점
- 4) 製作過程에 있어서는 必히 가래나무를 使用했다는 점
- 5) 表紙 製作時에는 반드시 蜂蠟, 蘇香, 梔子水를 썼다는 점
- 6) 많은 時間과 精誠을 들였다는 점

內賜記 및 內賜本에 對하여는 무엇보다 王이 臣下에게 圖書를 頒賜할 때 그 圖書의 保存의 宿命을 兼한 內賜記를 記錄해 주었다는 점, 그리고 至曄의 威標로 璽寶를 捺印해 주었다는 점을 들어 時代順으로 論述해 보았다. 그러나 이를 究明하기 爲하여는 무엇보다 歷史를 알지 못하고는 代代順으로 變用된 形態를 識別할 수 가 없는 만큼 世宗 때에 「經筵」으로 부터 始作되어 「宣賜之記」「宣賜之寶」「同文之寶」「奎章之寶」「欽文之寶」 등으로 이어온 內賜圖書의 璽寶識別이란 奇聞일이 아닐을 밝힌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것은 內賜圖書는

- 1) 거의 損失이 없고 잘 保存돼 있다는 점.
- 2) 內賜記의 年月日은 그 圖書의 刊行年度와 同一하다는 점.
- 3) 雜書가 아닌 貴重圖書라는 점.
- 4) 內賜記의 制度는 世宗 22年頃 부터 高宗 32年(1895)까지 繼續되었다는 점.
- 5) 內賜書籍은 官板의 活字本이나 木板本에 局限돼 있다는 점.
- 6) 下賜對像은 極히 制限되어 王의 近臣과 各部의 高官을, 그리고 弘文館, 春秋館, 藝文館, 奎章閣 等 書籍을 必要로 하는 特殊機關이었다는 점.
- 7) 地方官에게는 좀처럼 下賜가 없었다는 점.
- 8) 璽寶가 時代에 따라 다른것이 使用되었다는 점.

을 할 수 있고, 따라서 下賜圖書를 頒賜해 주는 承政院이나 奎章閣 같은 機關에서는 반드시 書籍의 永久保存을 爲해 취해진 規則으로

- 1) 內賜圖書의 下賜制度는 法規와 같이 嚴格히 준수되었다는 점.
- 2) 製本을 하면 반드시 檢査를 받았다는 점.
- 3) 檢査를 받는 節次는 內賜記와 아울러 宣賜之記, 奎章之寶 같은 璽寶를 捺印해 줌으로서 證明되었다는 점.
- 4) 이런 절차를 받아 下賜된 圖書는 受賜者의 後孫에 依하여 名譽롭게 承傳되었다는 점.

18 도서판학 논집

등을 들 수 있는데 이상 몇가지 條項은 內賜本 識別에 있어 缺해서는 안될 必需課題인 것이다.

그리고 添言할것은 우리나라 書誌學界에서 지금까지 다루고 研究한 課題는 主로 版本學, 出版學, 金石學을 위주로 하여 活字種類, 版心, 魚尾, 紙質識別 等에서 年代考證, 貴重本解題로 論題를 거듭해온 結果 이 分野에 對하여는 많은 知識을 傳達해 주었고, 또 지금도 끊임없이 學術論文이나 主題發表로 因한 知識傳達이 連結되고 있으나 外形의인 書誌, 即 菱花板 考察이나 內賜本에 대한 論旨는 거의 없었던 것이 사실이 었다.

그러나 이 分野에 대한 文獻 資料는 극히 드물고 또한 근거 있게 傳授된 參考古典조차 별로 없기 때문에 이를 細論하기란 심히 어려운 과제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소홀히 다루기 힘든 主題를 가지고 筆者가 本誌에 論述한 동기는 전부터 마음을 기우려 이분야 주제에 대한 書誌調査를 해온 보람도 있기는 하나 무엇보다 筆을 감을만큼 힌트를 얻은 것은 첫째 書誌學者 白麟先生의 「內賜記에 대한」 論旨이 있다는 것을 밝히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껏 未洽하고 소홀했던 點은 앞으로의 時間에 의지할 計劃이며 이어 不合理한 理論에 對하여는 先輩 諸學들의 서슴 없는 諫타와 下教를 간곡히 바라면서 빗을 말로 筆을 놓는다.

參 考 文 獻

脚註에 依함.

A Study of NUNGWHAPAN and NESAKI

Lee Un Tack*

(Summary)

Getting collective conclusions of NUNGWHAPAN study is like the followings, respectively.

- 1) Book covers after Korea Dynasty king Kojong 38th years are appeared 卍 marks and YUNWHAMUNPAN.
- 2) After completion of great works of the complete collection of Buddhist Scripture (Daejangkyung) at the period of king Kojong 38th year of Korea dynasty, NUNGWHAPANS are had been made and used.
- 3) Characteristics of design itself is eternal one.
- 4) In the processing of making it, KARE tree had been used.
- 5) Honey, perfume, and CHIJA color used in the making of cover paper.
- 6) Devoted itself to much times and sincerities.

NESAKI (RECORD about a Royal donating his books to someone) stories could be concluded like the followings.

- 1) All is well preserved itself without suffering a loss.
- 2) Date of NESAKI is almost in accord with publishing years.
- 3) An object of valuable volumes without miscellaneous books.
- 4) A system of NESAKI continued King Sadjong 22nd years through king Kojong 32nd years (B.C 1895) of Yi dynasty.
- 5) NESAKI volumes are limited to public metal printing plates or wood printing plates.
- 6) The subject of donating books from King (NESA) is extremely limited to king's familiar relatives, first class ministers, and HONGMUNKWAN, CHUNCHUKWAN, YAEMUNKWAN, KYUJANGKAK.
- 7) Local ministers are never donated from king.
- 8) Different types of SOEBO had been used with the changes of times.

* Librarian, Keimyung College Library